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삶의 질 발전방안**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책임연구 정윤태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연구보조 김가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삶의 질 발전방안: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07. 31

연구자: 정윤태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7
제2절 빈곤이론과 사회배제이론	8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11
제2절 분석방법	13

제4장 결과분석

제1절 전국 영구임대주택 만족도	15
1. 주택만족도	15
2. 주거환경만족도	16
3.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7
제2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실태	22
1. 영구임대주택의 가구특성 및 경제력	22
2.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및 주거환경	31
3. 영구임대주택 관리	53
4. 복지서비스	56
5.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72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81
1. 전국 영구임대주택 만족도	81
2.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실태	82
제2절 제언	86
참고문헌	88

〈표 2-1〉 빈곤과 사회적 배재	9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징	12
〈표 4-1〉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원 수	22
〈표 4-2〉 장애인 가구의 장애유형	23
〈표 4-3〉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원 수	28
〈표 4-4〉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수준별 거주기간	32
〈표 4-5〉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이사 횟수	34
〈표 4-6〉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내부 편의시설 설치 가구 비율	35
〈표 4-7〉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외부 편의시설	36
〈표 4-8〉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만족도	37
〈표 4-9〉 40세 미만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	38
〈표 4-10〉 41-5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	39
〈표 4-11〉 51-6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	40
〈표 4-12〉 61-7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	41
〈표 4-13〉 71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	42
〈표 4-14〉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만족	43
〈표 4-15〉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상태	44
〈표 4-16〉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45
〈표 4-17〉 영구임대주택 입주관련 정보	46
〈표 4-18〉 입주 시 불편사항	46
〈표 4-19〉 영구임대주택의 장점	47

〈표 4-20〉	영구임대주택의 단점	48
〈표 4-21〉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입주단계별 서비스 만족	49
〈표 4-22〉	이웃주민과 갈등 이유	52
〈표 4-23〉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	54
〈표 4-24〉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56
〈표 4-25〉	연령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57
〈표 4-26〉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58
〈표 4-27〉	연령별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59
〈표 4-28〉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	60
〈표 4-29〉	연령별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	61
〈표 4-30〉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경험	62
〈표 4-31〉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경험	62
〈표 4-32〉	고용서비스 필요성	64
〈표 4-33〉	연령별 고용서비스 필요성	65
〈표 4-34〉	교육서비스 필요성	66
〈표 4-35〉	연령별 교육서비스 필요성	67
〈표 4-36〉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	68
〈표 4-37〉	연령별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	69
〈표 4-38〉	기타복지서비스 필요성	70
〈표 4-39〉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 필요성	71
〈표 4-40〉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72
〈표 4-41〉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개별심층면접	73

[그림 1-1] 연구절차	5
[그림 4-1] 전국 주택만족도	16
[그림 4-2] 전국 주거환경 만족도	17
[그림 4-3]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고용서비스	18
[그림 4-4]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교육서비스	19
[그림 4-5]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주거지원서비스	20
[그림 4-6]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기타복지서비스	21
[그림 4-7] 장애인 가구	23
[그림 4-8] 근로형태	24
[그림 4-9] 소득수준: 월평균 근로소득	25
[그림 4-10] 소득수준: 금융소득	25
[그림 4-11] 소득수준: 공정이전 소득	26
[그림 4-12] 소득수준: 사적이전 소득	27
[그림 4-13] 가계부채	28
[그림 4-14] 임대료 부담	29
[그림 4-15] 주거관리비 부담	30
[그림 4-16]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31
[그림 4-17]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이전 주택소유 여부	33
[그림 4-18] 영구임대 거주가구의 무주택 기간	34
[그림 4-19]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50
[그림 4-20]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민조직 참여여부	51
[그림 4-21] 이웃주민과 갈등 유무	51
[그림 4-22] 선호하는 관리방식	55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 가운데 주거권(Housing Rights, Right to Housing)이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쾌적한 주거생활이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주거권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1978년 인간정주프로그램(UN-HABITAT)을 설치하고 1992년에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으며, 결정적으로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엔 제2차 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 171개국 정부가 채택한 정주의제(The Habitat Agenda Goals and Principles, Commitments and the Global Plan of Action: Habitat Agenda)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더욱 발전하여 2002년 4월에는 유엔 주거권프로그램(United Nations Housing Rights Programme, UNHRP)이 UN-HABITAT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의해 공동으로 출범되었다(고은태, 2009).

이러한 주거권 확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1989년 12월부터 최초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 council housing, public housing)인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는 시장논리로 전개되어온 주택정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대상은 주로 국민기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료를 특징으로 입주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거주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 즉, 영구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이후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등의 효시가 되며 주거 빈곤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박윤영, 2007).

그러나 정책 도입 3년만인 1992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입주민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시설파손, 공급주체에 의한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단지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며, 39~56m²의 획일화된 평면과 편복도로 밀집 배치된 주호 구성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더불어 초기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건축경년이 20여년을 지나면서 구조체 및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주차시설 부족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한국주거학회, 2007). 즉,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환경의 중요성이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역할이 수행되는 배경을 제공하며(Rigby, Lowe, Letts, & Stewart, 2008), 사회적, 문화적, 유기적, 제도적, 물리적 측면 등으로 넓게 정의되며, 이러한 측면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Law, Cooper, Strong, Stewart, Rigby, & Letts, 1996). 이는 환경이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0년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일부 재개하였으며 에너지절약형인 그린 홈으로 개보수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국토해양부, 2011). 이는 임대주택의 특성 상 일반분양주택과는 달리 입주 후 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대한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입주자의 주거실상에 대한 불만이 심화하여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주거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열악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집행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빈곤

계층인 이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사회연대원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형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내부 거주자의 관점에서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내부 거주자의 관점에서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하위 주제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토대로서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의 비교를 통한 삶의 질 수준측정을 토대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와 및 지역사회복지욕구서비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와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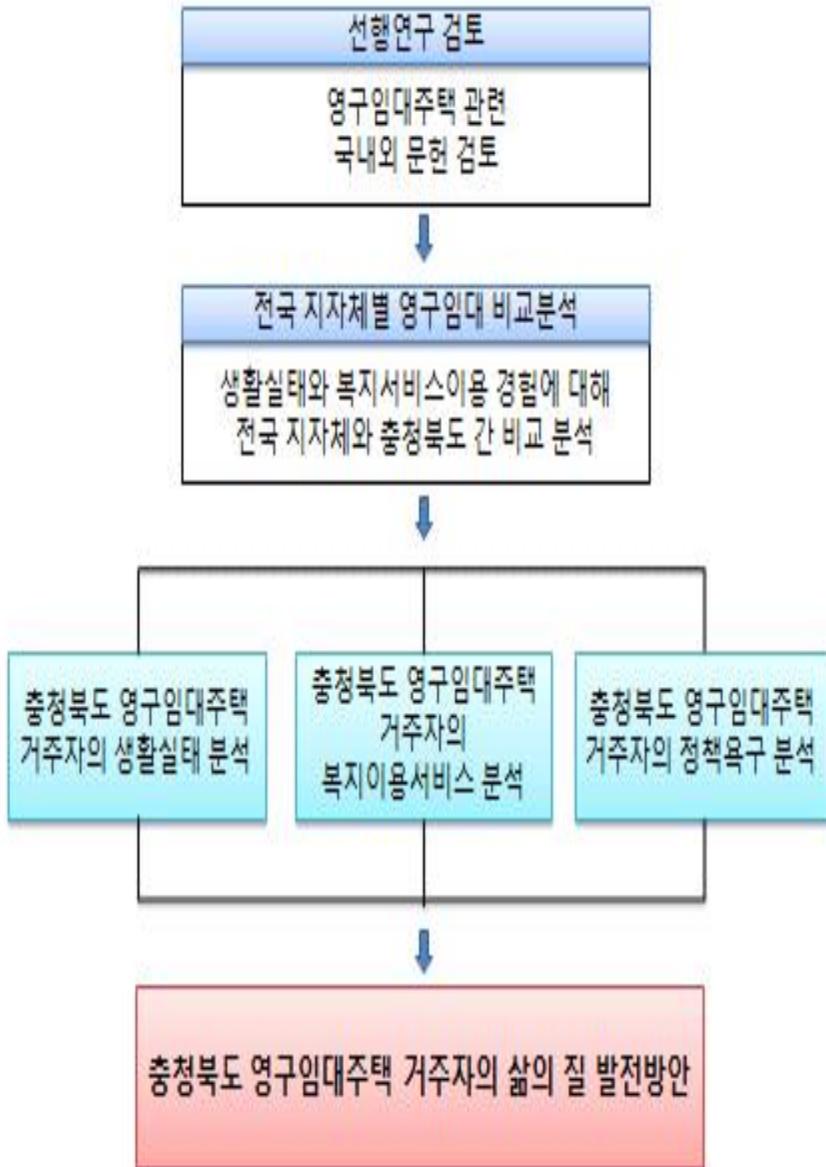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로 영구임대주택과 관련된 학술지 및 정부와 지자체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하여 구축한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 거주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셋째,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수렴하고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수행과정의 논리적 흐름은 다음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절차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은 사회적·국가적으로 중요한 목표지만 매우 복잡하여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논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생활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유사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Diener, 1984).

다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삶의 질의 개념이 고정되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에 따른 상황과 관련이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질은 삶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삶의 질의 개념은 1960년대 말에 비로소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지배적인 사회적 목표였던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달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Noll, 2002). 처음에 삶의 질은 현금소득의 분배에는 나타나지 않는 영양상태, 의복, 주거, 교육수준, 사회보장, 근로조건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다 점차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 또는 행복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Argyle, 1987; 서재욱·정운태, 2014재인용).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 양적인 측면을 우선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학계에서도 삶의 질이라는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빈곤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최선화·황성철, 1997; 임재현 외, 2011)에 불과하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개

개인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여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에 기초한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산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기초하여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와 및 지역사회복지욕구서비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노년층과 장애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와 발전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빈곤이론과 사회적 배제이론

주거권은 중요한 사회적 욕구로서 인간은 주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주거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 중 첫 번째 ‘생리적 욕구’와 두 번째 ‘안전의 욕구’와도 연관이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차적인 사회적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수단을 통해 지급되는 유일한 형태의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국가에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및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고하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빈곤 탈피라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홍인옥, 2003).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자들은 대부분 빈곤계층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2-1> 빈곤과 사회적 배제

빈곤	사회적 배제
물질적 차원	사회참여
분배	관계성
결과	과정
경제적 권리	시민적 권리
하층에서 상층으로	밖에서 안으로
일면성	다면성
계량화 용이	계량화 어려움

출처: Kenyon et al., 2002; 노시학, 2007; 정운태, 2010에서 재인용

위의 <표 2-1>을 보면, 빈곤은 주로 물질적 결핍에 치중하고 있지만, 사회적 배제는 주거, 소득, 근로, 사회참여 등의 능력상실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로빈슨과 오펜하임(Robinson & Oppenheim, 1998)은 경제적 측면이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 지목하였으며,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관련 연구의 주류는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사회, 정치, 문화적 측면의 논의와 지표화를 통해 전통적인 빈곤에 국한한 논의와는 차별성을 보여준다(Berman & Philips, 2000; Vlemincks & Berman, 2001). 한편, 영국 정부는 사회적 배제란 실업, 저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나쁜 건강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가족의 붕괴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고통 받는 개인이나 지역에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Social Exclusion Unit, 1997).

이에 기초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사회적 배제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편견과 낙인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는 주거지 특성, 계층적 특성, 복지서비스, 관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종균, 1997). 이처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문제를 일차원적인 상태에서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동태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Silver 1994, Burchardt, Le Grant, and Piachaud, 2002, 문진영 2004).

따라서 빈곤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과 부족에 기초한 단일차원적인 빈곤개념에서 벗어나 빈곤으로 인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비록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공적 소득이전과 주거를 보장받는다 고 할지라도 대부분 경제 및 건강 의존성이 높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3장

연구방법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해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하여 구축한 ‘2011년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 거주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충북영구임대주택 실태조사의 참여대상은 전체 402가구 이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3-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46.3%, 여성이 53.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7.4%의 비율로 높게 집계되었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1세-40세 미만이 4.7%, 41세-50세 미만이 9.5%, 51세-60세가 22.6%, 61-70세가 29.1%, 71세 이상이 32.8%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연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69.9%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14.9%, 고등학교가 13.4%, 대학교 이상이 1.7%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학력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접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 중 90.5%가 가구주로 나타났고, 9.5%가 가구주의 배우자로 나타났다. 가구주 형성배경을 살펴본 결과 결혼으로 가구주가 형성된 경우가 47.0%로 나타났고, 결혼과 무관하게 가구주가 된 경우가 53.0%의 비율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7%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구임대: N=402(단위: %)

구분		빈도	계
성별	남성	46.3	100.0
	여성	53.7	
연령	30세 미만	1.2	100.0
	31-40세	4.7	
	41-50세	9.5	
	51-60세	22.6	
	61-70세	29.1	
	71세 이상	32.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9.9	100.0
	중학교 졸업	14.9	
	고등학교 졸업	13.4	
	대학교 졸업	1.7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	90.5	100.0
	가구주의 배우자	9.5	
가구주 형성배경	결혼으로 가구주가 됨	47.0	100.0
	결혼과 무관하게 가구주가 됨	53.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예	286(71.7)	100.0
	아니오	116(28.9)	

제2절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SPSS 21.0program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와 5개 도(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및 6개 광역시(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시의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그리고 복지만족도의 빈도분석과 평균비교를 하였다. 또한 충북 영구임대주택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제4장

결과분석



제4장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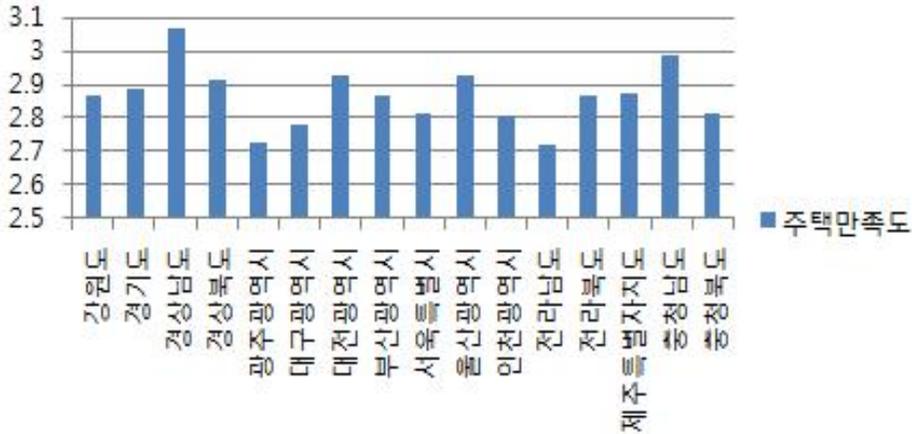
제1절 전국 영구임대주택 만족도

1. 주택만족도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도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는 다음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상남도가 3.07%의 비율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2.99%의 비율로 주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2.93%, 경상북도가 2.92%, 경기도 2.89%, 제주특별자치도 2.88%, 강원도와 부산광역시, 전라북도가 2.87%,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가 2.82%, 인천광역시 2.81%, 대구광역시 2.78%, 광주광역시 2.73%, 전라남도 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청북도의 주택만족도는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공동 8위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청북도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위: %



[그림 4-1] 전국 주택만족도

2. 주거환경만족도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는 다음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상북도가 3.37%의 비율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과 충청남도가 3.13%의 비율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경상남도과 전라북도가 3.07%, 부산광역시가 3.03%, 충청북도가 3.02%,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3.01%, 울산광역시가 3.0%, 제주특별자치도가 2.98%, 대전광역시가 2.98%, 대구광역시가 2.96%,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2.95%, 전라남도가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중간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위권에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단위: %



[그림 4-2] 전국 주거환경 만족도

3.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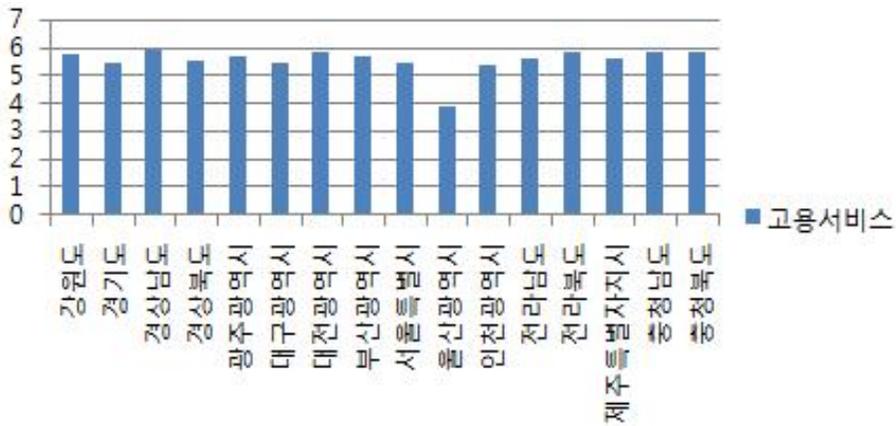
1) 고용서비스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가 5.94%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5.92%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5.87%로 나타났고, 충청북도가 5.86%, 강원도가 5.85%, 광주광역시가 5.74%, 부산광역시가 5.73%, 제주특별자치도가 5.64%, 전라남도가 5.63%, 경상북도가 5.62%,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자치시가 5.54%, 경기도가 5.52%, 인천광역시가 5.44%, 울산광역시가 3.9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충청북도는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4위에 자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작업장 개설 및 일감제

공과 관련된 고용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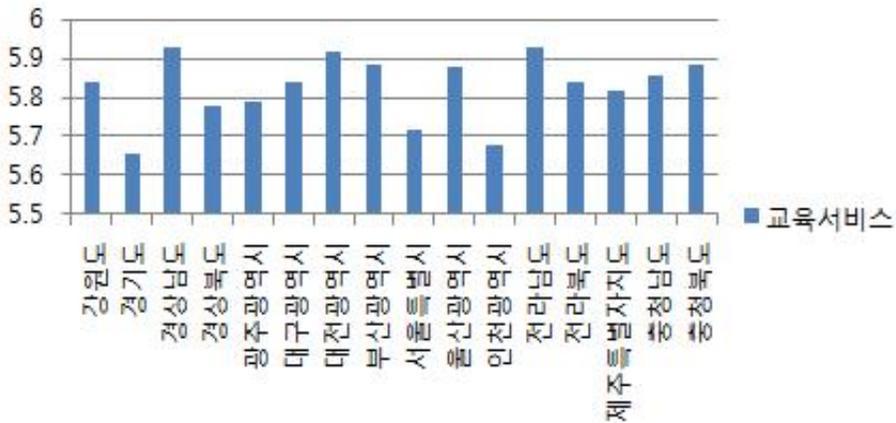
[그림 4-3]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고용서비스

2) 교육서비스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5.9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5.92%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가 5.89%, 울산광역시가 5.88%, 충청남도가 5.86%, 강원도와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5.84%의 비율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시가 5.82%, 광주광역시가 5.79%, 경상북도가 5.78%, 서울특별자치시가 5.72%, 인천광역시가 5.68%, 경기도 5.66%, 의 비율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공동 3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단위: %



[그림 4-4]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교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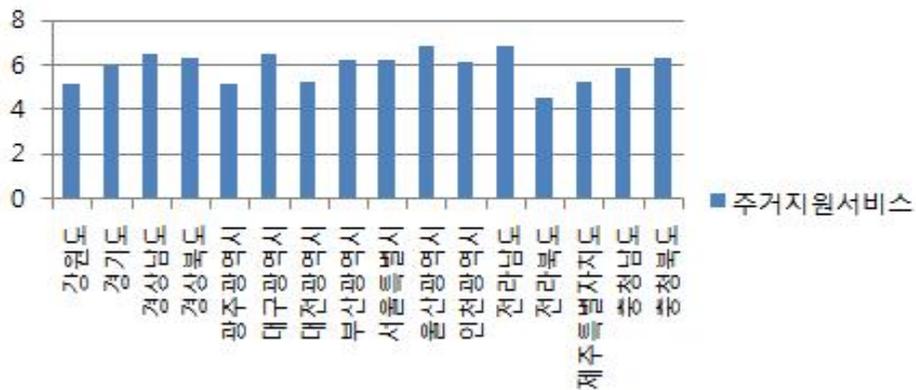
3) 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가 6.96%의 비율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6.94%, 경상남도가 6.55%, 대구광역시가 6.52%, 충청북도가 6.39%, 경상북도가 6.34%, 부산광역시가 6.29%, 서울특별시가 6.27%, 인천광역시가 6.20%, 경기도가 6.04%, 충청남도가 5.96%, 대전광역시가 5.32%, 제주특별자치도가 5.28%, 강원도가 5.22%, 광주광역시가 5.19%, 전라북도

가 4.6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충청북도의 주거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5위로 전체 16개 시·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지원서비스 혹은 필수가구나 비품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는 서비스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와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



[그림 4-5]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주거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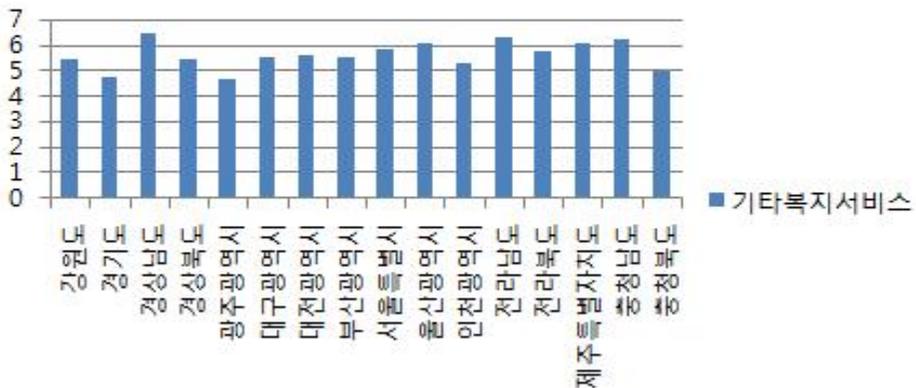
4) 기타복지서비스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가 6.55%의 비율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6.34%, 충청남도가 6.26%, 제주특별자치도가 6.12%, 울산광역시가 6.10%, 서울특별시가 5.86%, 전라북도가 5.80%, 대전광역시가 5.70%, 대구

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5.62%, 강원도가 5.50%, 경상북도가 5.53%, 인천광역시가 5.32%, 충청북도가 5.05%, 경기도가 4.76%, 광주광역시가 4.7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기타복지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보장구 지원 및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은 기타복지시설에 대한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은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기타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위: %



[그림 4-6] 전국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기타복지서비스

제2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실태

1. 영구임대주택의 가구특성 및 경제력

1) 가구특성

(1) 가구원 수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자의 가구원 수는 다음 <표 4-7>에 제시하였다. 영구임대 전체 402가구 중 1인 가구가 58.0%, 2인 가구 28.1%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3인 가구가 10.3%, 4인 가구 3.2%, 5인 가구 0.5%, 6인 가구 0.2%의 비율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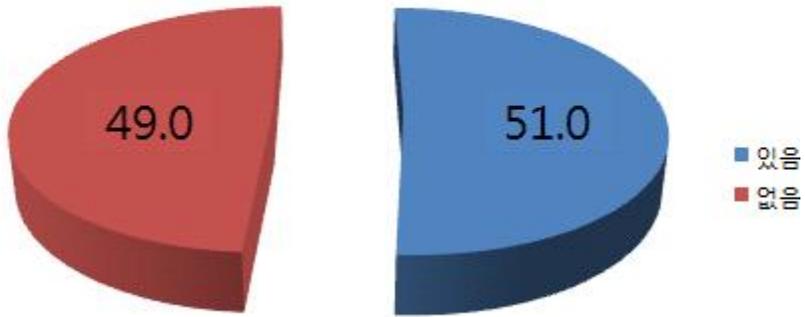
<표 4-1>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원 수

N= 402(단위: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계
58.0	28.1	10.0	3.2	0.5	0.2	100.0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가구원 중 장애를 가진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그림 4-7]에 제시하였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원 중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51.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49.0%의 가구가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구임대주택 개보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N= 402(단위: %)

[그림 4-7] 장애인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장애가 있는 51.0%는 가구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이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1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이 8.9%, 청각장애인이 4.7%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내·외부시설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4-2> 장애인 가구의 장애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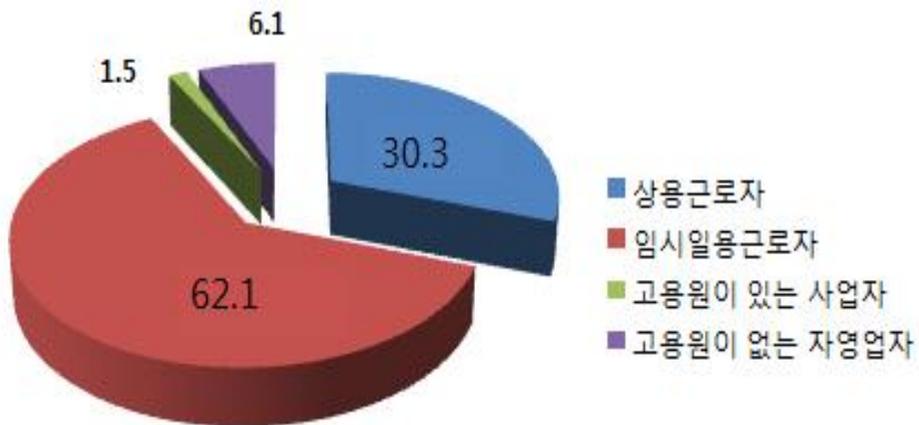
단위: %

휠체어사용 지체장애	휠체어미사용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15.1	51.6	8.9	4.7	23.4

2) 경제력

(1) 근로형태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근로형태는 다음 [그림 4-8]에 제시하였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62.1%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30.3%가 상용 근로자, 6.1%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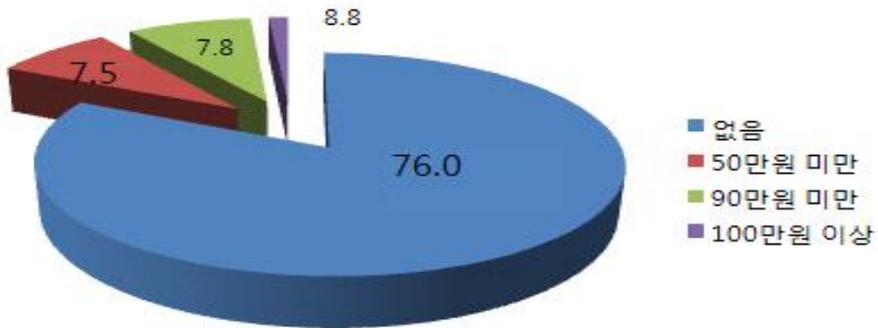


N= 336(단위: %)

[그림 4-8] 근로형태

(2)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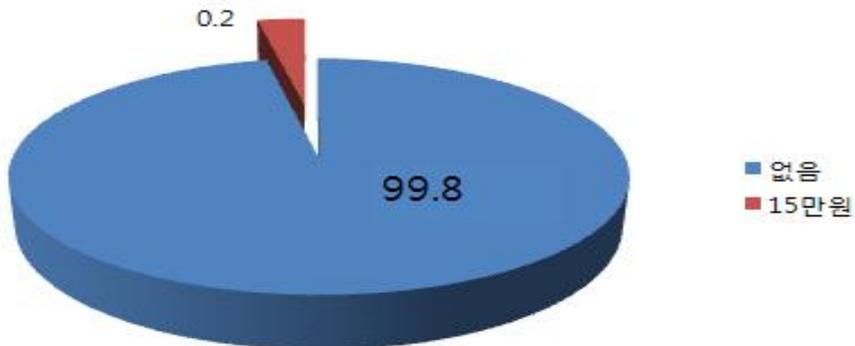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76.0%가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유한 가구가 8.8%로 나타났으며 90만원 미만이 7.8%, 50만원 미만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N= 400(단위: %)

[그림 4-9] 소득수준: 월평균 근로소득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금융소득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99.8%의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금융소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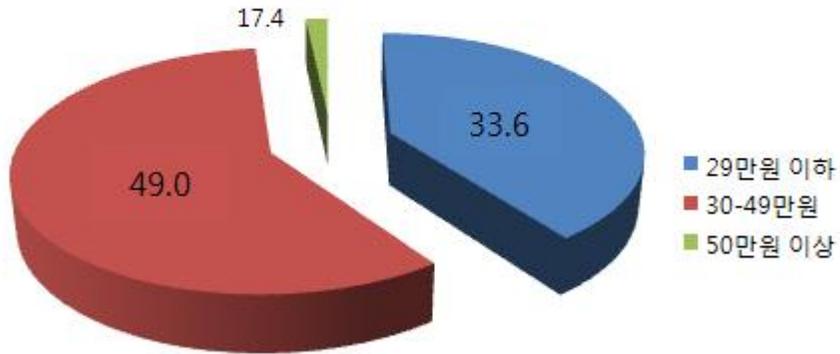


N= 402(단위: %)

[그림 4-10] 소득수준: 금융소득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한 결과, 30-49만원이 49.0%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9만원 이하가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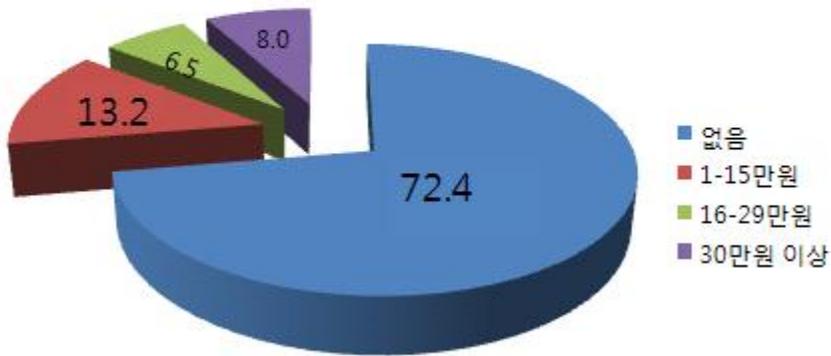
50만원 이상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82.6%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N= 402(단위: %)

[그림 4-11] 소득수준: 공적이전 소득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을 분석한 결과, 사적 이전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72.4%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5만원이 13.2%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N= 402(단위: %)

[그림 4-12] 소득수준: 사적이전 소득

영구임대 거주가구의 소득수준별 가구원수는 다음 <표 4-3>에 제시하였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1인 가구가 68.4%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가 24.0%의 비율로 나타나 월평균 근로소득 없는 가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0만원 미만에서도 1인 가구가 37.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가 40.6%의 비율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1-99만원인 경우 2인과 3인 가구가 32.3%의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2.6%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가구의 수가 51.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인, 3인 및 5인 가구가 16.1%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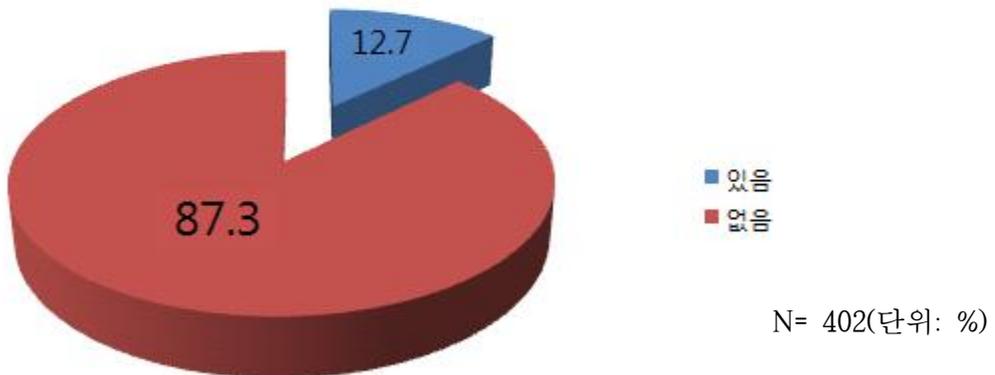
<표 4-3> 영구임대 거주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원 수

단위: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N	계
없음	68.4	24.0	5.6	1.3	0.7	-	304	100.0
50만원 미만	37.5	40.6	18.8	3.1	-	-	32	
51-99만원	22.6	32.3	32.3	9.7	-	3.2	31	
100만원 이상	16.1	51.6	16.1	16.1	-	-	31	

(3) 가계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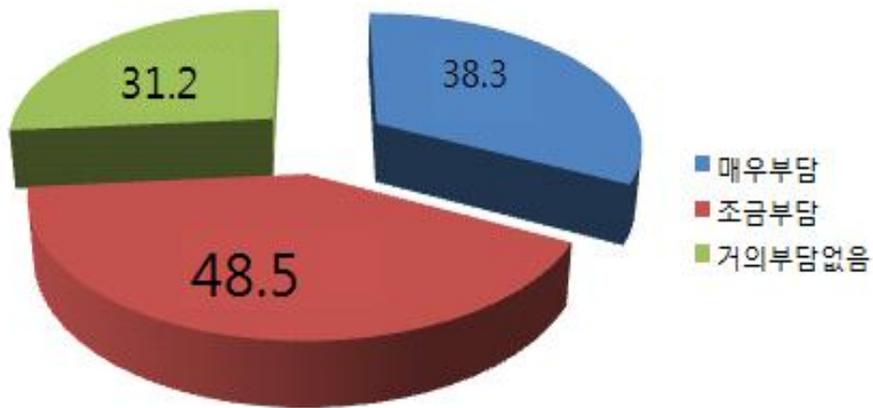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가계부채를 살펴본 결과 [그림 4-1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7%가 가계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7.3%가 가계부채가 없는 것으로 타나, 가계부채가 없는 가구가 있는 가구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가계부채

(4)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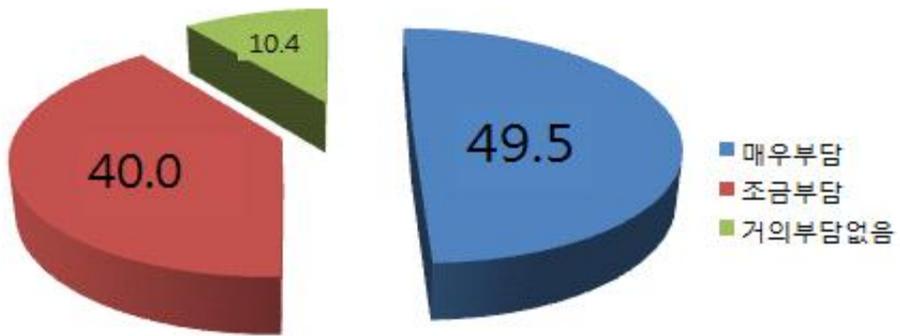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4-14]에 제시하였다. 임대료 부담에서는 ‘거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2%로 나타났고, 대부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 402(단위: %)

[그림 4-14] 임대료 부담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49.9%가 ‘매우 부담스럽다’, 40.0%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대부분이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 402(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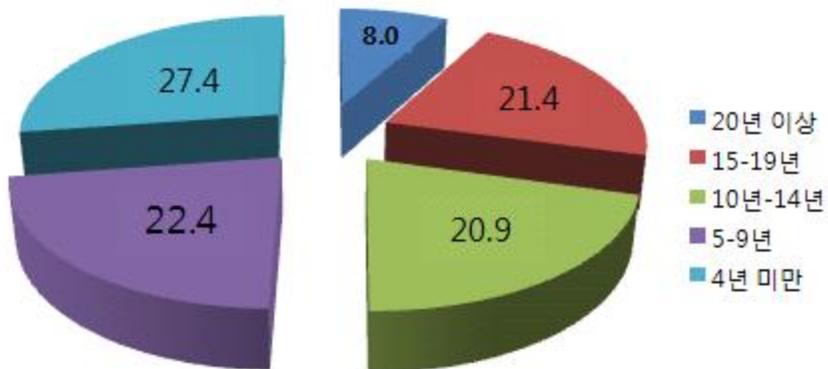
[그림 4-15] 주거관리비 부담

2.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및 주거환경

1) 거주기간

(1)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총 거주기간은 4년 미만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년-9년 미만이 22.4%, 10년-14년이 20.9%, 15-19년이 21.4%, 20년 이상이 8.0%로 나타났다.



N= 402(단위: %)

[그림 4-16]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2)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수준별 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별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없는 경우 4년 미만이 30.9%로 높게 나타났고, 50만원 미만에서는 4년 미만과 15-19년이 25.5%로 나타났다. 또한 51만원에서 99만원과 100만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에서는 15년-19년이 38.7%로 나타났다.

<표 4-4>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수준별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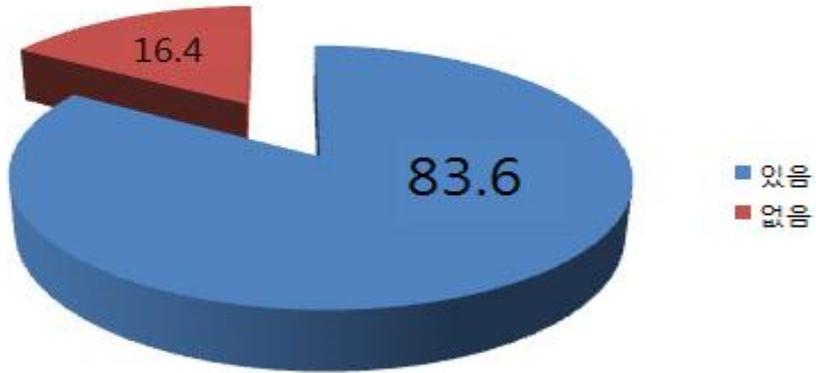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년이상	15년-19년	10년-14년	5년-9년	4년미만	N	계
소득이 없는 경우	6.6	17.1	20.7	24.7	30.9	304	100.0
50만원 미만	12.5	25.5	15.6	21.9	25.5	32	
51만원-99만원	12.9	38.7	25.8	9.7	12.9	31	
100만원 이상	9.7	38.7	25.8	12.9	12.9	31	

2)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1) 주택소유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소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었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었다는 응답이 16.4%로 나타나, 상당수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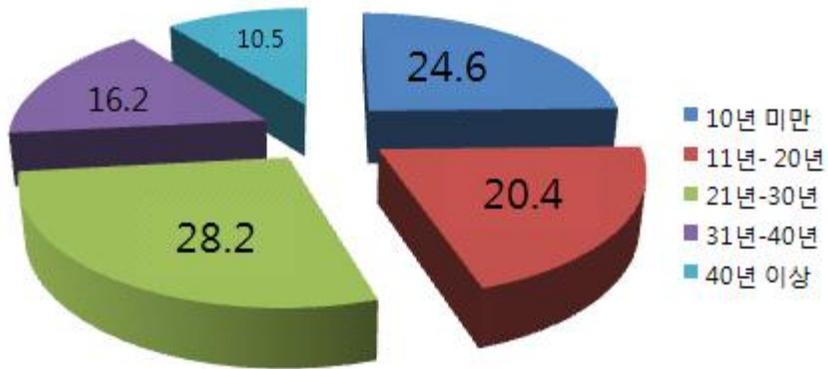


N= 402(단위: %)

[그림 4-17]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이전 주택소유 여부

(2)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 경험이 없었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21년-30년이 2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년 미만이 24.6%, 11년-20년이 20.4%, 31년-40년이 16.2%, 41년 이상이 10.5%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평균 16.4년 정도로 분석되었다.



N= 333(단위: %)

[그림 4-18]영구임대 거주가구의 무주택 기간

3) 이사 횟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이 전 이사 횟수는 ‘3번 미만’ 이 3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번-6번’ 이 23.3%, ‘7번-10번’ 이 15.7%, ‘11번-15번’ 이 9.5%, ‘16번-19번’ 이 3.5%, 20번 이상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평균 이사회는 7.04번으로 나타났다.

<표 4-5>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이사횟수

N= 323(단위: %)

3번미만	4번-6번	7번-10번	11번-15번	16번-19번	20번 이상	계
39.4	23.3	15.7	9.5	3.5	6.0	100.0

4)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 및 장애인 내부 편의시설 설치(복수응답)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 및 장애인 내부 편의시설을 살펴본 결과 ‘싱크대 및 작업대 높이’가 96.0%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휠체어통행 가능 폭 확보’가 94.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경보기’ 2.0%와 ‘단차제거’ 8.0%, ‘미끄럼방지 바닥재’ 8.0%, ‘화장실 내 휠체어 공간 확보’ 8.0%로 설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4-6>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내부 편의시설 설치 가구 비율

N= 402(단위: %)

구분	손잡이	안전손잡이/지지대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비상벨	휠체어통행 가능 폭 확보
영구임대	7.9	25.0	0.8	0.8	27.0	94.0

구분	화장실 내 휠체어 공간 확보	싱크대 및 작업대 높이	가스밸브 높이	인터폰 높이	시각경보기	계
영구임대	0.8	96.0	86.9	82.5	2.0	100.0

(2)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외부 편의시설(복수응답)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 및 장애인 외부 편의시설을 살펴본 결과, ‘경사로’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100.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12.4%로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점자블럭 시설’이 37.8%의 비율로 나타나 이 두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4-7>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외부 편의시설

N= 402(단위: %)

경사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엘리베이터/휠 체어 리프트	휠체어 통행 가능한 도로폭 및 상태	점자블럭	계
100.0	100.0	12.4	100.0	37.8	100.0

5) 주택만족도

(1) 영구임대주택의 주택만족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면적’에서는 78.1%의 높은 비율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의 개수’는 만족한다는 것이 총 82.8%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방의크기’는 72.1%의 비율로 만족한다는 것이 높았고, ‘평면구조’ 81.1%와 ‘통풍 및 채광’ 82.9%의 비율로 만족이 불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난방상태’도 58.9%의 비율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41.0%로 나타나 난방상태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구임대주택의 ‘방음상태’는 51.8%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방음상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만족도

N= 402(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사용면적	8.2	13.7	21.9	75.1	3.0	78.1	100.0
방의 개수	8.2	9.0	17.2	77.1	5.7	82.8	
방의 크기	11.7	16.2	27.9	69.9	2.2	72.1	
평면 구조	9.2	9.7	18.9	76.9	4.2	81.1	
통풍/채 광	4.0	13.2	17.2	72.9	10.0	82.9	
난방 상태	20.6	20.4	41.0	51.7	7.2	58.9	
방음 상태	16.7	35.1	51.8	44.3	4.0	48.3	
입주시 개보수	1.5	8.0	9.5	86.1	4.5	90.6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연령별 주택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40대 미만은 ‘사용면적’ 62.5%, ‘방의 크기’ 58.4%, ‘난방상태’ 54.2%, ‘방음상태’ 70.8%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음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방음상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예측하게 한다.

<표 4-9> 40세미만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 만족

N= 24(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40세미만	사용면적	20.8	41.7	62.5	39.5	-	39.5
	방의 개수	25.0	25.0	50.0	50.0)	-	50.0
	방의 크기	29.2	29.2	58.4	41.7	-	41.7
	평면 구조	20.8	20.8	41.6	58.3	-	58.3
	통풍/채광	16.7	25.0	41.7	54.2	4.2	58.4
	난방 상태	29.2	25.0	54.2	41.7	4.2)	45.9
	방음 상태	20.8	50.0	70.8	29.2	-	29.2
	입주시 개보수	8.3	25.0	33.3	62.5)	4.2	66.7
							100.0

41세에서 5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사용면적’ 62.5%, ‘방의 크기’ 58.4%, ‘난방상태’ 54.2% 및 ‘방음상태’ 70.8%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의 개수’ 나 ‘평면구조’, ‘통풍 및 채광’ 에서는 만족이 불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아 41세에서 50세 연령에서는 전체적인 주택 만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10> 41세-5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 만족

N= 24(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41-50	사용면적	20.8	41.7	62.5	39.5	-	39.5
	방의 개수	25.0	25.0	50.0	150.0	-	50.0
	방의 크기	29.2	29.2	58.4	41.7	-	41.7
	평면 구조	20.8	20.8	41.6	58.3	-	58.3
	통풍/채광	16.7	25.0	41.7	54.2	4.2	58.4
	난방 상태	29.2	25.0	54.2	41.7	4.2	45.9
	방음 상태	20.8	50.0	70.8	29.2	-	29.2
	입주시 개보수	8.3	25.0	33.3	62.5	4.2	66.7
							100.0

51세에서 6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방음상태’ 62.0%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음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방음상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51세-6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 만족

N= 79(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51 - 60	사용 면적	5.1	21.5	26.6	70.9	2.5	73.4	100.0
	방의 개수	5.1	12.7	17.8	73.4	8.9	82.3	
	방의 크기	8.9	21.5	30.4	67.1	2.5	69.6	
	평면 구조	12.7	8.9	26.6	75.9	2.5	78.4	
	통풍/채광	2.5	13.9	16.4	72.2	11.4	83.6	
	난방 상태	25.3	11.4	36.7	58.2	5.1	63.3	
	방음 상태	22.8	39.2	62.0	35.4	2.5	37.9	
	입주시 개보수	2.5	8.9	11.4	86.1	2.5	88.6	

61세에서 7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입주시 개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95.7%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통풍 및 채광’에 대한 만족도가 88.1%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의개수(87.2%), 평면구조(86.3%), 사용면적(85.4%), 방의크기(76.9%) 등의 순으로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61세-70세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 만족

N= 117(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61-70	사용면적	6.8	7.7	14.5	80.3	5.1	85.4	100.0
	방의개수	6.8	6.0	12.8	81.2	6.0	87.2	
	방의크기	10.3	12.8	23.1	72.6	4.3	76.9	
	평면구조	4.3	9.4	13.7	79.5	6.8	86.3	
	통풍/채광	1.7	10.3	12.0	68.4	19.7	88.1	
	난방상태	17.9	17.1	35.0	49.6	15.4	65.0	
	방음상태	11.1	36.8	47.9	42.7	9.4	52.1	
	입주시개보수	-	4.3	4.3	86.3	9.4	95.7	

71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입주시개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96.2%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의개수’ 88.7%, ‘사용면적’ 87.1%, ‘평면구조’ 84.0%, ‘통풍 및 채광’ 83.3% 순으로, 71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음상태’는 41.6%의 불만족을 보이고 있어 영구임대주택의 방음상태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표 4-13> 71세 이상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택 만족

N=132(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71세 이상	사용 면적	6.1	6.8	12.9	84.1	3.0	100.0	
	방의 개수	6.8	4.5	11.3	82.6	6.1		
	방의 크기	7.6	11.4	19.0	79.5	1.5		
	평면 구조	6.8	9.1	15.9	79.5	4.5		
	통풍/채광	3.8	12.9	16.7	78.0	5.3		
	난방 상태	15.2	23.5	38.7	56.8	4.5		
	방음 상태	9.8	31.8	41.6	56.1	2.3		58.4
	입주시 개보수	-	3.8	3.8	93.2	3.0		96.2

6) 주거환경 만족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시설’이 99.2%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이 97.5% ‘재해로부터 안전장도’에 대한 만족도가 96.7%, ‘유통시설과 시설관리’가 9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주변 소음’은 59.5%의 비율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40.5%의 비율로 불만족 응답이 있어 영구임대주택의 집주변 소음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예측하게 한다.

<표 4-14>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N= 402(단위: %)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소계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소계	
유통시설	-	3.5	3.5	81.8	14.7	96.5	100.0
의료복지 시설	1.7	14.4)	16.1	73.6	10.2	83.8	
문화시설	-	0.7	0.7	73.6	25.6	99.2	
대중교통	-	2.5	2.5	73.6	23.9	97.5	
주차시설	0.7	3.5	4.2	78.9	16.9	95.8	
통근통학 부담	0.7	7.3	8.0	69.3	22.7	92.0	
교육환경	0.5	3.2	3.7	79.6	16.7	96.3	
치안문제	2.0	9.2	11.2	77.9	10.9	88.8	
집 주변 소음	14.9	25.6	40.5	49.8	9.7	59.5	
쓰레기 처리상태	6.0	20.1	26.1	66.9	7.0	73.9	
이웃과 관계만족	2.0	10.7	12.7	76.4	10.9	87.3	
사생활보호	2.5	11.9	14.4	79.4	6.2	85.6	
재해로부터 안전정도	0.5	2.7	3.2	73.1	23.6	96.7	
시설관리	1.5	2.0	3.5	80.6	15.9	96.5	
아파트 외관	0.5	2.5	3.0	77.4	18.7	96.1	
전반적 만족도	0.2	3.7	3.9	89.6	6.5	96.1	

7) 임대주택 시설상태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상태’에 대해서는 94.0%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상태’가 95.8%의 비율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급수 및 배수 상태’가 87.6%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곰팡이 및 결로 상태’가 87.0%, ‘내장재’가 82.6%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 주택의 전반적 시설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상태

N= 402(단위: %)

구분	불량			양호			계
	아주 불량	약간 불량	소계	대체로 양호	아주 양호	소계	
내장재	4.5	12.9	17.4	78.6	4.0	82.6	100.0
급수·배수	1.7	10.7	11.4	81.6	6.0	87.6	
곰팡이·결로	3.7	9.2	12.9	80.3	6.7	87.0	
창호	0.5	3.7	4.2	88.3	7.5	95.8	
전반적 상태	1.0	5.0	6.0	91.0	3.0	94.0	

8)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필요성(복수응답)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세대내부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19.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CC-TV설치’와 ‘난방시스템 개선’이 17.9%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이 8.9%,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7.1%, ‘보안등 교체’와 ‘녹지 및 휴

게시설 개선' 이 5.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주민운동시설 개선' 과 '이륜차 보관소 설치' 가 3.6%, '발코니 샷시 교체' 와 '어린이 놀이터 개선' 이 1.8%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단위: %

구분		빈도	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CC-TV 설치	17.9	100.0
	통합 경비 시스템 구축	8.9	
	녹지 및 휴게시설 개선	5.4	
	주민운동 시설 개선	3.6	
	어린이 놀이터 개선	1.8	
	장애인 경사로 설치	7.1	
	재활용품 보관시설	7.1	
	이륜차 보관소 설치	3.6	
	세대내부 환경개선	19.6	
에너지 절감 사업	발코니 샷시 교체	1.8	
	난방시스템 개선	17.9	

9) 입주경로 및 거주

(1) 입주관련 정보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입주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주변사람' 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3.0%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공서’가 35.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복지기관’이 3.7%, ‘신문/잡지/방송’이 1.0%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획득에 따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영구임대주택 입주관련 정보

N=402(단위: %)

신문/잡지/방송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주변 사람	기타	없음	계
1.0	35.6	3.7	53.0	0.2	6.5	100.0

(2) 입주시 불편사항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불편사항을 살펴본 결과 불편사항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7.2%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긴 대기시간(26.4%)’이나 ‘입주 시기 불명확(10.4%)’이 입주시 불편사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4-18> 입주시 불편사항

N=402(단위: %)

긴 대기시간	지역 선택 불가능	입주시기 불명확	기타	없음	계
26.4	0.5	10.4	5.5	57.2	100.0

(3) 영구임대주택 장점(복수응답)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이사걱정 경감’이 49.5%

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쾌적한 주변환경’ 이 16.9%, ‘저렴한 주거비’ 가 13.0%, ‘좋은 주거환경’ 이 9.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연계’ 는 3.5%, ‘좋은 내부시설’ 은 2.3%, ‘주거밀도 개선’ 과 ‘좋은 이웃관계’ 는 1.5%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내부시설 관리 그리고 이웃관계 증진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19> 영구임대주택의 장점

N= 402(단위: %)

이사걱정 경감	좋은 주거환경	좋은 내부시설	주거밀도 개선	저렴한 주거비	직주근접
49.5	9.6	2.3	1.5	13.0	0.1
복지 서비스연계	좋은 이웃관계	쾌적한 주변환경	없음	계	
3.5	1.5	16.9	2.1	100.0	

(4) 영구임대주택의 단점(복수응답)

영구임대주택의 단점을 살펴본 결과 ‘공공질서의식부족’ 이 20.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나쁜 주변 환경’ 이 11.2%로, ‘주거비 부담’ 이 10.1%, ‘내부시설 불만족’ 이 5.7%, ‘가구원 수에 비해 작은 규모’ 가 5.3%, ‘주택관리 미흡’ 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질서의식부족’ 과 ‘나쁜 주변환경’ 에 대한 문항이 영구임대주택의 단점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4-20> 영구임대주택의 단점

N= 402(단위: %)

직장생활 활터전 과 멀어짐	부정적 이미지	공공 질서 의식 부족	나쁜 교육 환경	주거비 부담	생활비 증가	가구원 수에 비해 작은 규모
0.2	6.1	20.6	1.5	10.1	3.7	5.3
가구원 수에 비해 큰 규모	내부시설 불만족	상당소 복지단체 지원받기 어려움	나쁜 주변 환경	주택 관리 미흡	없음	계
0.4	5.7	0.4	11.2	5.0	29.8	100.0

(5) 임대주택 입주단계별 서비스 만족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입주단계별 서비스 만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입주자 모임관련 서비스에서 97.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임 서비스가 잘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표 4-21〉 영구임대 거주자의 입주단계별 서비스 만족

N= 402(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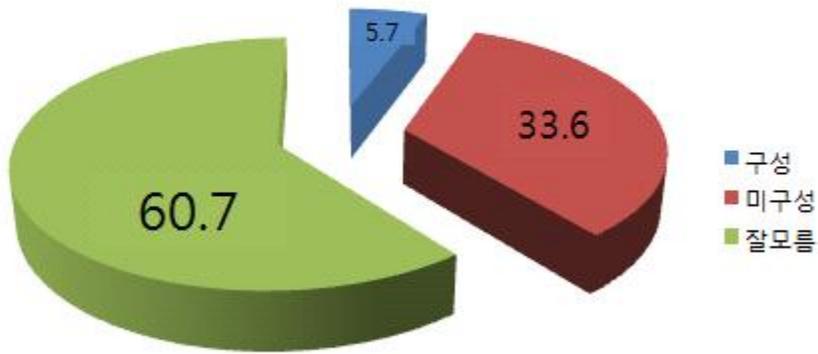
구분	불만족		만족		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입주자 모입관련서비스	-	2.6	96.0	1.3	100.0
입주 당시 서비스	-	4.0	94.0	2.0	100.0
입주 직후 하자보수 서비스	-	7.9	89.4	2.7	100.0
전반적 만족도	-	4.0	94.7	1.3	100.0

10) 이웃과의 관계 및 주민참여

(1)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여부 및 필요성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의 60.7%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미구성’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33.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예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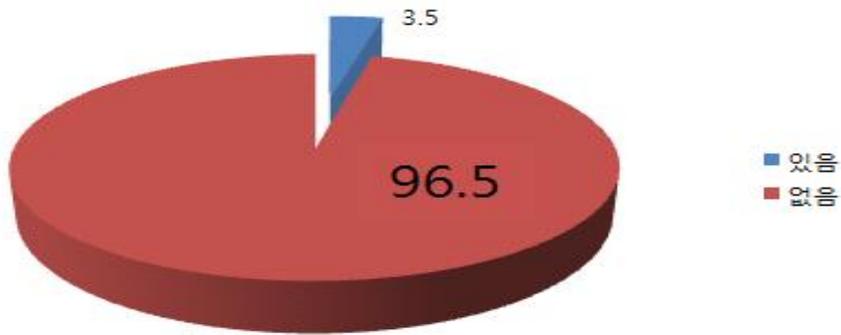


N= 402(단위: %)

[그림 4-19]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2) 주민조직 및 모임 참여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조직 및 주민조직 모임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민조직 및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96.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조직 및 모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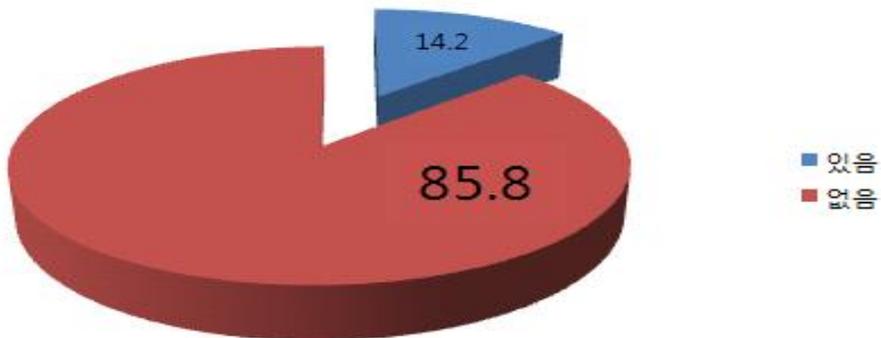


N= 402(단위: %)

[그림 4-20] 영구임대 거주자의 주민조직 참여여부

(3) 이웃주민과의 갈등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이웃주민과 갈등 정도와 갈등이유를 살펴본 결과 다음 [그림 4-2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갈등이 ‘없음 (85.8%)’ 으로 응답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 간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N= 402(단위: %)

[그림 4-21] 이웃주민과 갈등 유무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갈등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애완동물 관련 갈등’ 이 30.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방치 및 투하’ 가 25.2%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음 및 고성방가’ 가 22.2%, ‘음주관련 갈등’ 이 9.6%의 비율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 간 갈등의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 물건 적재’ 가 4.4%의 비율로 분석되어 영구임대주택 건물 내 환경 개선을 통한 이웃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22> 이웃주민과 갈등이유(복수응답)

단위: %

주차문제	소음 및 고성방가	공공기물 파손	쓰레기 방치 및 투하	사생활 침해
0.7	22.2	0.7	25.2	2.2
음주관련 갈등	흡연관련 갈등	애완동물 관련 갈등	공용공간 물건적재	계
9.6	4.4	30.4	4.4	100.0

3. 영구임대주택 관리

1)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

(1)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지내 시설 및 조경관리 노력’에 대한 응답이 전체 96.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리 직원의 친절’이 94.8%, ‘입주민 실태를 잘 파악’한다는 응답이 92.3%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은 대부분 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관리서비스 개선 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71.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의 임대료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은 임대주택 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관리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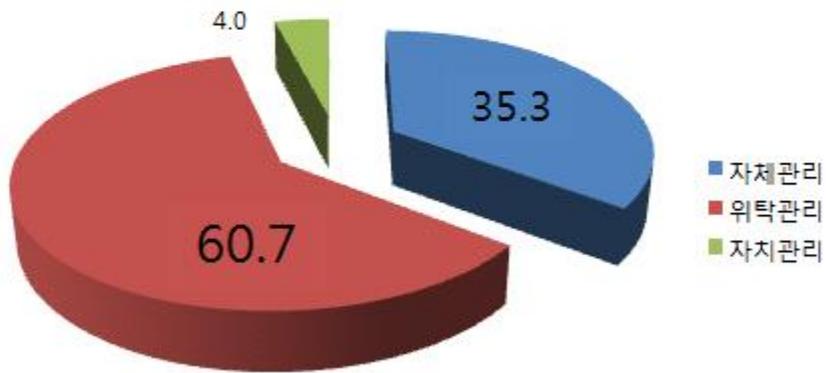
<표 4-23>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

N= 402(단위: %)

구분	아니다			그렇다			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소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계	
서비스 요청시 신속하게 처리	1.7	8.7	10.4	77.4	12.2	89.6	100.0
수선결과에 만족	1.5	12.7	14.2	78.1	7.7	85.8	
단지 내 질서유지 노력	1.0	9.5	10.5	77.6	11.9	89.5	
단지 내 시설 조정 관리에 노력	0.2	3.0	3.2	70.1	26.4	96.5	
경비업무가 잘 이루어짐	2.0	8.2	10.2	72.9	16.9	89.8	
관리비 절감에 노력	1.5	17.4	18.9	73.6	7.5	81.1	
업무 및 비용 공개가 잘 이루어짐	2.2	24.9	27.1	68.9	4.0	72.9	
관리비에 비례하여 관리서비스 적절	8.5	23.2	31.7	65.2	3.2	68.4	
관리서비스 개선 시 관리비인상 부담	24.6	46.0	71.5	26.1	3.2	29.3	
입주민 실태를 잘 파악	1.2	6.5	7.7	89.1	3.2	92.3	
주민자치 모임과 협력이 잘 이루어짐	5.7	14.4	20.1	76.6	3.2	79.8	
관리직원의 친절	1.0	4.2	5.2	89.6	5.2	94.8	

(2) 선호하는 관리방식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이 선호하는 관리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탁관리’가 60.7%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들은 대부분 자체 관리보다 위탁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 %

[그림 4-22] 선호하는 관리방식

4. 복지서비스

1)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서비스와 교육서비스 그리고 주거지원서비스, 기타복지서비스로 구분하였다.

(1) 고용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2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일자리 제공’ 서비스 이용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창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이 2.0%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94.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제공	공동 작업장	창업 지원		
0.2	-	3.5	0.2	2.0	94.0	100.0

연령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용경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41-50세, 51-60세 61-79세, 71세 이상 모두 에서는 자활이나 공공근로 등 ‘일

자리 제공' 이 각각 12.5%, 13.2%, 2.5%, 1.7%,1.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있는 거주가들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5> 연령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직업 상당	직업 훈련	일자리 제공	공동 작업 장	창업 지원	없음	N	계
40세미만	4.2	-	12.5	4.2	-	79.2	24	100.0
41-50세	-	-	13.2	-	2.6	84.2	38	
51-60세	-	-	2.5	-	1.3	96.2	79	
61-70세	-	-	1.7	-	2.6	95.7	117	
71세이상	-	-	1.5	-	2.3	96.2	132	

(2) 교육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문화 취미 프로그램’ 이 2.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과후 공부방’ 과 ‘독서실 및 문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1.0%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한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이 전체 95.3%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대부분이 연령이 높아 보육서비스나 방과 후 공부방 등과 같은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6>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N= 402(단위: %)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
보육 서비스	방과후 공부방	독서실 및 문고	교육 상담	문화취미 프로그램		
0.2	1.0	1.0	-	2.5	95.3	100.0

연령별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40대 미만은 ‘보육서비스’ 에서 4.2%, ‘방과후 공부방’ 에서 8.3%의 비율이 나타났다. 41세-50세 연령에서는 ‘독서실 및 문고’ 가 5.3%, ‘방과후 공부방’ 과 ‘문화취미 프로그램’ 이 2.6%의 비율로 나타났다.

51세-60세 연령에서는 ‘독서실 및 문고’ 와 ‘방과후 공부방’ 이 1.3%의 비율로 나타났고, ‘문화취미 프로그램’ 이 2.5%의 비율로 나타났다. 61세에서 70세와 71세 이상에서는 ‘문화취미 프로그램’ 이 각각 2.6%와 2.3%의 비율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교육서비스 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4-27> 연령별 교육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보육서비스	방과후 공부방	독서실 및 문고	교육 상담
40세 미만	4.2	8.3		
41-50세	-	2.6	5.3	-
51-60세	-	1.3	1.3)	-
61-70세	-	-	-	-
71세 이상	-	-	0.8	-

구분	문화취미 프로그램	없음	N	계
40세 미만		87.5	24	100.0
41-50세	2.6	89.5	38	
51-60세	2.5	94.9	79	
61-70세	2.6	97.4	117	
71세 이상	2.3	97.0	132	

(3) 주거지원 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가 31.6%의 비율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 수도 등 연결’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5.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62.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용률을 알 수 있다.

<표 4-28>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

N=383(단위: %)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
전기 수도 등 연결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집수리/ 도배		
5.2	0.5	-	0.5	31.6	62.2	100.0

연령별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40세 미만,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모두 공통적으로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 이용률이 각각 41.7%, 28.9%, 27.8%, 30.8%, 33.3%의 비율로 나타나 전 연령에 걸쳐 집수리 및 도배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내부시설이 노후하여 상대적으로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9> 연령별 주거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계약 지원	전기 수도 등 연결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교육 서비스
40세 미만	-	-	-	-
41-50세	-	7.9	-	-
51-60세	-	3.8	1.3	-
61-70세	-	6.0	-	-
71세 이상	-	6.1	0.8	-

구분	프로그램 연계	집수리/ 도배	없음	N	계
40세 미만	-	41.7	58.3	24	100.0
41-50세	-	28.9	63.2	38	
51-60세	-	27.8	67.1	79	
61-70세	-	30.8	63.2	117	
71세 이상	1.5	33.3	58.3	132	

(4) 기타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서비스 이용이 29.9%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14.2%, ‘일상생활지원’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49.8%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4-30> 기타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N= 402(단위: %)

이용 경험 있음						없음	계
일상생활 지원	방문 간호	보장구 지원	건강검진 무료진료	단기 보호시설	정보제공/ 상담		
5.0	14.2	1.0	29.9	0.2	0.5	149.3	100.0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의 전 연령에 걸쳐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각각, 12.5%, 26.3%, 29.1%, 35.0%, 31.1%의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일상생활 지원	방문 간호	보장구 지원	건강검진 무료진료	단기 보호시설
40세미만	-	4.2	-	12.5	-
41-50세	2.6	15.8	-	26.3	-
51-60세	-	16.5	-	29.1	-
61-70세	0.9	9.4	1.7	35.0	-
71세 이상	12.1	18.9	1.5	31.1	0.8

구분	정보제공/ 상담	없음	N	계
40세미만	4.2	79.2	24	100.0
41-50세	-	56.3	38	
51-60세	-	54.4	79	
61-70세	0.9)	52.1	117	
71세 이상	-	35.6	132	

6) 가장 필요한 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해 ‘고용서비스’, ‘교육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기타복지서비스’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1) 고용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3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12.2%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상담’ 서비스가 1.5%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83.8%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 패널 참여자의 연령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2> 고용서비스 필요성

N= 402(단위: %)

고용서비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제공	공동 작업장	창업 지원		
1.5	0.5	12.2	0.7	1.2	83.8	100.0

연령에 따른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3>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타 다른 연령보다 40세 미만에서 ‘일자리 제공’에 대한 필요도가 29.2%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1세-50세 연령에서 18.4%, 51세-60세는 13.9%, 61세-70세는 11.1%, 71세 이상은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보다 40세 이하부터 50세까지 연령에서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40세 이하부터 50세 까지 연령에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3> 연령별 고용서비스 필요성

단위: %

구분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공동 작업장
40세미만	4.2	-	29.2	-
41-50세	2.6	-	18.4	-
51-60세	1.3	1.3	13.9	2.5
61-70세	1.7	-	11.1	0.9
71세 이상	-	0.8	5.3	-

구분	창업지원	필요 없음	N	계
40세미만	4.2	62.5	24	100.0
41-50세	-	78.9	38	
51-60세	2.5	78.5	79	
61-70세	0.9	85.5	117	
71세 이상	0.8	93.2	132	

(2) 교육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34>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취미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2%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독서실 및 문고’에 대한 욕구가 2.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92.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고령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4-34> 교육서비스 필요성

N=402(단위: %)

교육서비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보육 서비스	방과후 공부방	독서실 및 문고	교육 상담	문화취미 프로그램		
-	1.2	2.2	1.0	3.2	92.3	100.0

연령별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에서는 자녀보육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12.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독서실 및 문고’와 ‘문화취미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가 4.2%의 비율로 나타났다. 41세-50세의 연령에서는 ‘방과 후 공부방’ 서비스의 요구도가 7.9%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 서비스가 2.6%의 비율로 나타났다.

51세- 60세, 61세-70세, 71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문화취미 및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각각 3.8%, 2.6%, 3.8%의 비율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취미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다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35> 연령별 교육서비스 필요성

단위: %

구분	보육서비스	방과후 공부방	독서실 및 문고	교육 상담
40세미만		8.3	4.2	12.5
41-50세	-	7.9	-	-
51-60세	-	-	1.3	-
61-70세	-	-	1.7	-
71세 이상	-	-	1.5	0.8

구분	문화취미 프로그램	필요 없음	N	계
40세미만	4.2	70.8	24	100.0
41-50세	2.6	81.6	38	
51-60세	3.8	94.9	79	
61-70세	2.6	95.7	117	
71세 이상	3.8	93.9	132	

(3) 주거지원 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3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가 26.9%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서비스가 8.2%, ‘전기 수도 등 연결’이 5.0%, ‘교육서비스’가 2.7%, ‘프로그램 연계’가 2.09%, 임대주택 ‘계약 지원’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축 시기가 오래되어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거지원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도 53.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36>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

N= 402(단위: %)

계약 지원	주거지원서비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전기 수도 등 연결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집수리/ 도배		
7(1.7)	5.0	8.2	2.7	2.0	26.9	53.5	100.0

연령별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집수리 및 도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세 미만에서는 ‘전기수도 등 연결’과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이 8.3%의 비율로 나타났고, 41세-50세에서는 ‘전기수도 등 연결’이 7.9%,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이 5.3%의 비율로 나타났다. 51세-60세, 61세-70세에서는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이 8.9%, 6.0%의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수도 등 연결’이 각각 5.1%,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71세 이상에서는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이 11.4%, ‘전기수도 등 연결’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연령별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

단위: %

구분	계약 지원	전기 수도 등 연결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교육 서비스
40대미만	4.2	8.3	8.3	4.2
41-50세	2.6	7.9	5.3	-
51-60세	2.5	5.1	8.9	2.5
61-70세	1.7	3.4	6.0	1.7
71세 이상	0.8	5.3	11.4	4.5

구분	프로그램 연계	집수리/ 도배	필요 없음	N	계
40대미만	-	41.7	33.3	24	100.0
41-50세	2.6	23.7	57.9	38	
51-60세	3.8	25.3	51.9	79	
61-70세	0.9	24.8	61.5	117	
71세 이상	0.8	25.8	51.5	132	

(4) 기타복지서비스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기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검진 무료 진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0.8%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26.6%,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이 5.2%, '방문 간호' 가 4.7%, '보장구 지원' 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기타복지서비스 필요성

N=402(단위: %)

기타복지서비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일상생 활 지원	방문 간호	보장구 지원	건강검진 무료진료	단기 보호시설	정보제공 /상담		
26.9	4.7	1.7	30.8	0.2	5.2	30.3	100.0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9>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세 미만에서는 '건강검진 무료진료'와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8.3%의 비율로 나타났다. 41세-50세, 51세에서 60세, 61세에서 70세 71세 이상 연령에서는 '건강검진 무료진료'가 각각 21.1%, 30.4%, 35.9%, 34.8%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일상생활지원'과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4-39> 연령별 기타복지서비스 필요성

단위: 가구(%)

구분	일상생활 지원	방문 간호	보장구 지원	건강검진 무료진료	단기 보호시설
40세 미만	41.7	-	4.2	8.3	4.2
41-50세	26.3	5.3	-	21.1	-
51-60세	25.3	3.8	1.3	30.4	-
61-70세	14.5	2.6	2.6	35.9	-
71세 이상	34.1	8.3	0.8	34.8	-

구분	정보제공상 답	필요 없음	N	계
40세 미만	8.3	33.3	24	100.0
41-50세	5.3	42.1	38	
51-60세	8.9	30.4	79	
61-70세	6.8	37.6	117	
71세 이상	1.5	20.5	132	

5.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1)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측정을 위한 2차 자료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40>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계층을 위한 시설 개조’에 대한 의견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가 14.0%의 비율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전기료 등과 같은 ‘공동관리비 보조’가 13.9%, ‘타지역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12.0%, ‘주택 내부 개보수 지원’이 8.5%, ‘노후시설물 정비지원’이 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특수계층을 위한 시설개조’에 대한 개선안이 높게 나와 영구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개선안이 두 번째로 높게 남은 것은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 대부분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구임을 보여준 결과로 본다.

<표 4-40>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N= 40(단위: %)

타지역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특수계층 을 위한 시설 개조	소득수준 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임대료/ 관리비 분할납부	단전/단수 유예	공동 관리비 보조	노후 시설물 정비지원
12.0	16.9	14.8	0.5	0.3	13.9	8.2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강화	주민 프로그램 지원	주민 공동시설 확충	주택내부 개보수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없음	계
0.8	1.1	1.8	8.5	3.2	18.1	100.0

2)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분석 결과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그룹면담 및 개별심층면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4-41>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개별심층면접 개요

구분	내용
1차 FGI	- 일시: 2015. 07. 21. - 참석자: 증평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3인 - 장소: 증평삼보사회복지관
2차 개별면담	- 일시: 2015. 07. 28. - 참석자: 증평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7인 - 장소: 증평 영구임대아파트

(1) 분석결과

국토교통부(2011)의 2차 자료에서 파악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정책 욕구별 우선순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진행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면접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계층을 위한 시설 개조

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요인들은 중요하다(백은령, 2003). 하지만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현재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가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희순 외(2012)의 지적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독립인 일상생활을 하고,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립심, 자심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가족 및 사회의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이들을 한 주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휠체어 다니는데 통로가 비좁아 무척 불편하죠 장애인들이 살기에는 무척 부족한 거예요 새로 지은 곳들은 좋겠지만 여기가 20년인가 21년 인가 되었으니까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장애인들이 다니는 곳 가운데 입구 저기가 불편해요 길이 비좁아서 힘들죠 휠체어로 다니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조심스럽죠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은 못 했고 그래서 손잡이 바 같은 것을 설치 못한 분들이 많아요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도움이 되는데 설치를 못 했죠

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참여자들은 임대료 보증금에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장애인들이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상 주로 소득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를 떠나 경제적

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특히 1급이나 2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3급 이하의 장애인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며 기초생활수급대상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장애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들하고 똑같이 임대료 보증금이 똑같은 것이 아니 예요 인자 보증금도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수급자는 100얼마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한 700이 넘어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혜택을 못 봐요 그런데 보면 인자 자기네들은 여기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오는데 못 받으니까 아쉬워하죠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혜택을 받죠 근데 장애 쪽으로 정부에서 돈 줘야 몇 푼 나오지도 않고 1, 2급이면 15만 원 정도 나오고 3급이면 4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것도 3만원이었던 것이 만 원 오른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돈 벌기도 쉽지도 않고 어렵게 사는 거죠 힘들죠

다. 공동 관리비 보조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동 관리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동전기료가 삼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로 독거노인들의 경우,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불을 켜지 않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층마다 동일하게 적용받는 난방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일반가구와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여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니까 공동전기료가 한 삼천 원 정도가 나와요 개인 전기세 내야지 공동전기료 내야지 하니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걸 균의원분들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해준다고는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동전기로 혜택요 내년에는 꼭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죠 진짜로 약속한다고 했으니
까 또 믿어봐야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갈 때도 불도 안 켜고 가요 비좁은데 부
딛히고 넘어지고 타박상 나고 개인 전기세 아끼고 공동전기세를 아낀다고 자기라도 아껴야
적게 나온다고 식사할 때도 불도 안 켜고 밥 집수고 그래요

47만원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관리비 내고 하면 살기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
에 거의 7, 8만원을 내는데 나머지 돈으로 살기가 무척 힘들지. 특히, 1층은 불만이 많아요
관리비는 1층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연료비는 차이가 없어요 1층은 겨울에 무척 추워요
위에 층부터 때워 내려오니까.. 늦게 뜨시고 일찍 식어버리고 아래는 허공이잖아요 그러니
까 겨울에는 맨날 뽕뽕 얼어야 돼 그러면 1층 사람들에게는 우리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연
료비를 차이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주겠어요? 1층 사람들은 너무 힘들
어요

일반하고 수급자나 전에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차이가 조금 나죠 일반하고 차상위하고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수급자분들은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엄청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는..

일반은 20만원내고 나 같은 수급자는 12만 원 정도 내지. 수도세나 전기세 그런 거 빼고
차상위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일반하고

바퀴벌레 같은 경우를 퇴치하려면 개인적으로 2만 원을 내야 해요 그러니 안 하는 집이 많
아요 하는 집만 해도 다른 집에 지저분한 집들에 많이 사니까 없어지지를 않아요 방역을
공동으로 하는 게 180원인데 차라리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바퀴벌레를 공동으로 해줬으
면 좋겠어요

라. 타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타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에 대한 욕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이주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거의 포기상태였다. 일반 가구에 비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소득에 따른 경제상태가 어렵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오히려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서둘러 보수를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니까 이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가구가 돈을 버니까 갈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같은 수급자들은 엄두가 안 나지. 돈도 못 버는데 다른 영구임대주택은 더 비싸니까. 새로 짓는 곳은 13평짜리는 비싸니까 갈 사람이 거의 없지. 돈 때문에 못 가니까 여기서 개기고 사는 거지. 깨끗한 시설 해주고 운동기구도 좀 해주고 해주면 고맙지.

35세대인데 한 30집인가가 비었어요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수급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저도 비수급자이거든요 형편이 피면 이사를 가죠 솔직히 여기는 뭐한 사람들이 많이 살지.

마. 주택내부 개보수 지원

참여자들은 주택내부 개보수 지원에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도배나 장판의 개보수의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구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살아도 5년에 한 번씩 도배나 장판을 해줘요 10년이 넘어도 안 해주는 집이 있어. 그 집을 가보면 벽이고 천장이고 엉망이야. 근데 그게 너무 길다 이거지. 지저분해지고 그러니 좀 단축해주고 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관리소에다가 10년이 넘었는데 왜 천장하고 도배를 안 해주냐고 했는데 해준다고 하고 미루고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지요.

바. 노후 시설물 정비지원

참여자들은 노후 시설물 정비지원을 받는데 있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관리소가 바쁜 것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인 시스템 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관리소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살다보면 전기도 절단 날 때가 있고 수도도 절단 날 때도 있고 화장실이 절단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그걸 해결해줘요 그런데 관리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쩔 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관리소가 바쁘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즉각즉각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뭘가 고장 났다던가 그러면 관리소에서 처리를 해주잖아요 소장님이 관리소에 와서 신청을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야 직원들이 메모를 하고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라 다들 길에서 이야기를 해 직원들이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직원이 적다 보니까 관리소도 그 전에는 5명 있었는데 지금은 경리까지 해서 4명이예요 한 사람은 당직을 서면 그 다음날 퇴근을 해야 하고 그러니 어쩔 때는 직원이 두 명이예요 또 교육을 간다 뭐하면 직원이 한 명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좀 늦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 복지욕구 서비스

참여자들은 복지욕구를 해결해주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80%가 독거 노인들이예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료 급식을 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도시락 배달도 해줘요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간혹 불만스러운 분들도 있긴 하죠 특히 장애인분들이 그래요

4급이나 5급은 가사도우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살림을 할 줄 알잖아요.

복지관에서 가끔 청소도 해주고 안부 인사도 해주고 참 고맙죠. 우리 같은 경우는 외로우니까 참 고마운 거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 3급까지는 그나마 요양보호사가 와주는데 4급, 5급이면 너무 힘들죠. 안 와주니까.

아. 기타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거주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CC-TV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설치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 중 두 번째 욕구인 ‘안전의 욕구’와 연관이 있는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1차적인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애완동물을 영구임대주택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해주기를 비라고 있었다. 한편, 노년층이 주로 생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특성 상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경로당이 부재하여 복지관의 식당을 경로당으로 대신 활용하고 있었다.

CC-TV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층에 사는 분들 가운데 붕다리를 아래로 던진다던가 하는데 위험해요. 많이 던져요. 술 마시고 그러기도 하고 여자노인들도 많아요. 물도 많이 부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할머니는 칼로 배 때지를 창세를 내버린다고 협박하고 무서워 죽겠어요. 관리소에서도 뒤쪽에 CC-TV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에는 지금 CC-TV 설치되어 있긴 해요. 근데 더 늘려야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애완견 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못하면서 개똥을 아무데나 싸게 하고 관리소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밤에 짓고 그래서 잠도 깊이 들기 힘들어요

경로당을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가 복지관 식당을 무상으로 쓰게 해줘서 경로당으로 삼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나마도. 근데 120명 정도가 모이는데 마이크도 없고 잘 못 알아듣고 비좁아요. TV가 옛날 구형인데 19인치 한 대예요. 궁둥이 툭 튀어 나온 거.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전국비교와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실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충청북도를 비교하였고,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제1절 결론

1. 전국 영구임대주택 만족도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를 전국 지자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만족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의 주택만족도는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공동 8위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북도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는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중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중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

과,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이용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연령이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에서는 주택 구입 및 임대차 계약지원서비스 혹은 필수 가구나 비품을 구매하거나 확보하는 서비스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와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전국 5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특히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기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중·고령자인 것을 볼 때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전국 13위로 낮게 나타난 것은 기타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실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생활실태를 분석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가구 특성 및 경제력을 살펴보고, 영구임대주택의 거주 및 주거환경, 영구임대주택 관리, 복지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정책요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가구 특성 및 경제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특성에서는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은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51.0%의 비율로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이 5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15.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구가 많았고, 공적 이전소득이나 사적 이전소득도 낮게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가계부채가 있었고,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빈곤 수준을 예측하게 한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1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이전 주택소유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전 약 6번의 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각경보기,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화장실 내 휠체어 공간 확보에 대한 설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 및 장애인 외부 편의시설을 살펴본 결과,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점자블럭 시설에 대한 설치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난방상태와 방음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도에서도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주변 소음에 대한 만

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시설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시설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주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사업 필요성에서는 시설내부 환경개선과 CC-TV설치, 난방시스템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경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변사람들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와 관련되어 장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이사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공질서의식부족과 나쁜 주변 환경, 주거비 부담 및 내부시설 불만족, 가구원 수에 비해 작은 규모, 주택관리 미흡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의식과 환경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민참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주민조직 및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 대표회의나 주민조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이웃주민과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서 애완동물 관련 갈등, 쓰레기 방치 및 투하, 소음 및 고성방가 등이 이웃간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공동주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및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방식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대부분 위탁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리서비스 개선 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는 관리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고용서비스에서는 일자리 제공과 창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에서는 문화취미 프로그램과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서비스에서는 집수리 및 도배 서비스, 전기 수도 등 연결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복지서비스 이용에서는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고용서비스에서는 일자리 제공서비스와 직업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에서는 문화취미 프로그램 서비스와 독서실 및 문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서비스에서는 집수리 및 도배서비스, 필수가구 비품 구매지원 서비스, 전기 수도 등 연결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기타복지서비스에서는 건강검진 무료진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거주자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욕구를 분석한 결과, 특수계층을 위한 시설 개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공동관리비 보조, 타지역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주택 내부 개보수 지원, 노후시설물 정비지원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제2절 제언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개보수시 비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수리해 주는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속 불편을 완화 및 해결하게 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전문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영구임대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임차인대표회의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활용하여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에서는 공동체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거관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으로서 획일적인 기준과 제도에 적용을 받는 복지수혜자이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이 확립된다면 이들의 삶의 질은 보다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확립된다면 충청북도 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은태(2009). 인권의 시각에서 본 주거권: 인권 틀의 변화. 공간과 사회, 32: 242-252.
- 국토해양부 (2011). 주택종합계획안. 국토해양부.
- 노시학(2007). 교통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41(4): 457-467.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박운영(2007).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 99-129.
- 우희순·박용규·임병훈(2012). 영구임대주택 입주장애인 현황 및 주거만족-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6(2): 189-208.
- 임재현·한상삼·최신용(2011). 영구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3(2): 251-275.
- 서종균(1997).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도시와 빈곤, 29: 5-19.
- 서재욱·정윤태(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정윤태(2010). 노년기 사회적 배제 규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황성철(1997). 영구임대주택 빈곤모자가정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43: 157-181.
-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서울: 교문사.

- 홍인옥(2003). 현물주거급여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시와 빈곤, 64: 14-27.
- Argyle, M.(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 Suh, E. M.(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and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Y: Russell Sage Foundation. 434-452.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4-43.
- Diener, E., Lucas, R. E., & Oishi, S.(2002).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and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3-73.
- Diener, E., & Seligman, M. E. P.(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2), 1-31.
- Diener, E., Lucas, R., Schimmack, U., & Helliwell, J. F.(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enyon, S., Lyos., and Rafferty, J.(2002). Transportation and Social exclusion: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inclusion through virtual mobil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0: 207-219.
- Law, M., Cooper., B, Strong, S., Stewart, D., Rigby, P. and Letts, L.(1996). The Person Environment-Occupation Model: A transactive approach to occupational performanc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3: 9-23.
- Noll, H. H.(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In M. R. Hagerty, J. Vogel & V. Moller(eds.), *Assessing Quality of Life and Living Conditions to Guide National Policy*.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iby, P., Lowe, M., Letts, L. and Stewart, D. (2008). Assessing Environment: Home, Community, and Workplace Access, In M. V. Radomski, & Trombly(Eds.),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6th*(pp.310-337).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Baltimore: Wolters Kluwer business.
- Richardson, L. and J. Le Grand. (2002). Outsider and Insider Expertise: The Response of Residents of Deprived Neighbourhoods to an Academic Definition of Social Exclusio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6(5): 496-515.
- Robinson, P and C. Oppenheim.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Social Exclusion Unit. (1997).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 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2015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인쇄일 / 2015년 7월 31일

발행일 / 2015년 7월 31일

발행인 / 심 의 보

발행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2 / 팩스 043)234-0849

* 판권소유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